

『은파산고』(恩坡散稿)의 성립과 심노승(沈魯崇)

김 수 진 *

- 1. 서론
- 2. 『은파산고』 필사본의 종류
- 3. 초고본과 정고본의 비교
- 4. 정고본의 형성과정
- 5. 남은 문제

1. 서론

본고는 일황재(一丸齋) 심낙수(沈樂洙, 1739~1799)의 필사본 문집인 『은파산고』(恩坡散稿)에 대한 종합적인 서지적 고찰을 시도한다. 심낙수는 그간 역사학 분야, 특히 조선후기 정치사 분야에서 중요하게 거론된 인물이다. 18세기 노론의 시벽(時僻) 분기에서 시파(時派)의 입장을 대표하는 종장(宗匠) 격의 인물로 조명되어왔다.¹⁾ 반면 그의 문학에 대해서는 이제껏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심낙수는 『은파산고』 소재(所載) 『정변록』(定辨錄)이 조선후기 당쟁사의 주요 사료로 활용되면서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변록』을 사료로 활용한 초기 연구는 박광용, 1984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 『한국사론』 10, 서울대학교, 177-271면(이태진 편, 1985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290-377면에 재수록); 박광용, 1990 「정조년간 時僻당 쟁론에 대한 재검토」 『한국문화』 11, 135-168면 참조. 한편 정조대 시벽분기와 심낙수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최성환, 2009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성환, 2012 「임오화변 관련 당론서의 계통과 정조조의 임오의리」 『역사와

못하였고 그의 문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문학 분야에서 심낙수 연구가 미진한 것은 다음 몇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심낙수라는 인물이 갖는 정치가로서의 높은 위상과 이미지 때문에 그의 문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다는 점이다. 둘째, 그의 문집이 저자 사후 간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필사본 문집에 대한 영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한계 외에도 심낙수가 갖는 개별자로서의 특수성이 그에 대한 연구를 제약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즉, 심낙수가 평생 견지한 개별자로서의 독특한 행보로 인해, 그와 밀접하게 교유하며 문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작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다시 말해서 동지적 결속이라든가 동인적 유대를 맺은 동시대 인물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에 대한 연구를 제약하는 주된 기제로 파악된다.

이에 본고는 심낙수 문집에 대한 충실한 서지적 분석을 통해 전술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향후 심낙수 문학 연구의 견고한 기초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다음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우선, 현존하는 심낙수 문집의 종류 및 수록작을 검토하여 필사본 간의 상호관계를 비정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심낙수 문집이 여타 문집과 다른 독특한 편성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러한 특징이 일어난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심낙수 관계 문헌을 수합해서 『은파산고』의 성립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할 것이다. 『은파산고』에는 서발문(序跋文)이 실려 있지 않아 저자의 유문(遺文)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되어 지금의 형태로 전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전산고』(孝田散稿)와 『제전유고』(弟田遺稿) 등 저자의 후손이 남긴 문헌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은파산고』의 자료상의 공백을 극복하고, 기왕에 막연하게 논의되던 심낙수 문집의 편찬과정을 실증적으로 재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고는 ‘문헌에 입각한 실증적 접근태도’를 견지할 것이되, 사실정

보를 확인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고구된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학적 전망을 보여주는가의 사안에까지 논의를 밀고 갈 것이다. 『은파산고』에 대한 문헌학적 탐사의 터널을 지나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새로운 단층이 무엇이고 그것이 담지한 학적 과제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 본고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

2. 『은파산고』 필사본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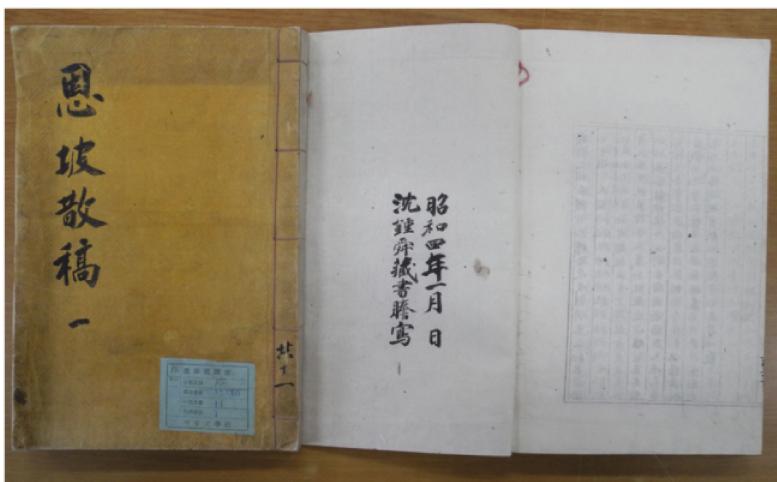
지금까지 확인되는 심낙수의 문집은 필사본으로만 네 종(種)이 전한다. 그 가운데 세 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다른 한 종은 베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 네 종 모두 표제(表題) 및 내제(內題)가 동일하게 “은파산고”(恩坡散稿)로 되어 있으므로, 논의의 편의상 소장처에 따라 ‘규장각소장본’과 ‘베클리대소장본’으로 구분해 명명하고, 규장각소장본 세 종은 도서번호를 부기해 표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도서번호만으로 지칭하기로 한다.²⁾

먼저, 규장각소장본 〈奎15680〉은 완질본(完帙本)으로 도합 11책으로 이루어졌다.³⁾ 제1책부터 제8책까지가 원집(原集)에 해당하고, 제9책은 부록(附錄)이며, 제10책과 제11책은 『정변록』(定辨錄)이다. 총목(總目)은 없고 제8책까지만 권별 목록이 달려 있다.

2) 본고의 고찰 대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점을 부기하고자 한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은파유고』(恩坡遺稿) 1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심낙수의 「열전」(列傳) 작품만을 추려 등사한 것이다. 그밖에도 규장각에는 심낙수의 『연행일승』이 별도의 책자로 분류되어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정변록』이 별도의 책자로 분류되어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심낙수의 작품을 부분적으로 필사해 만들어진 문헌은 본고의 이론 대조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奎15680〉본의 형태서지는 다음과 같다. 선장본(線裝本: 五針眼, 紅絲)이고, 책크기는 30.4×20.6cm이다. 필사본이 되 인찰지[四周雙邊, 半郭(19.6×13.8), 內向二葉花紋魚尾]를 사용하였다. 유계(有界)에 10항(行) 20자(字)이며, 제1책과 제3책에만 판구(版口)에 ‘효전당장서’(孝田堂藏書)라고 적어놓았다. 이하 규장각소장본 『은파산고』의 형태서지는 일괄 귀중본도서조사사업팀, 2013 『규장각소장 귀중본도서 조사사업 1차년도 결과보고서』, 1466-1471면 참조.

권차(卷次)는 제9책까지 매겨져 있는데, 한 권이 한 책을 이루고 있어 제9책 까지 권차와 책차가 일치한다. 제11책의 뒤표지 후면에 “昭和四年一月()日 沈鍾舜藏書謄寫”라고 적혀 있어, 심종순(沈鐘舜, 1858~?) 소장본의 후사본(後寫本)임을 알 수 있다. 심종순은 심낙수의 둘째 아들인 심노암(沈魯巖, 1766~1811)의 손자이다.⁴⁾ 그러므로 이 필사본은 1929년에 청송심씨가(青松沈氏家) 소장본(所藏本)을 등사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도판 1〉 규장각소장본 〈奎15680〉 제1책 표지 및 제11책 뒤표지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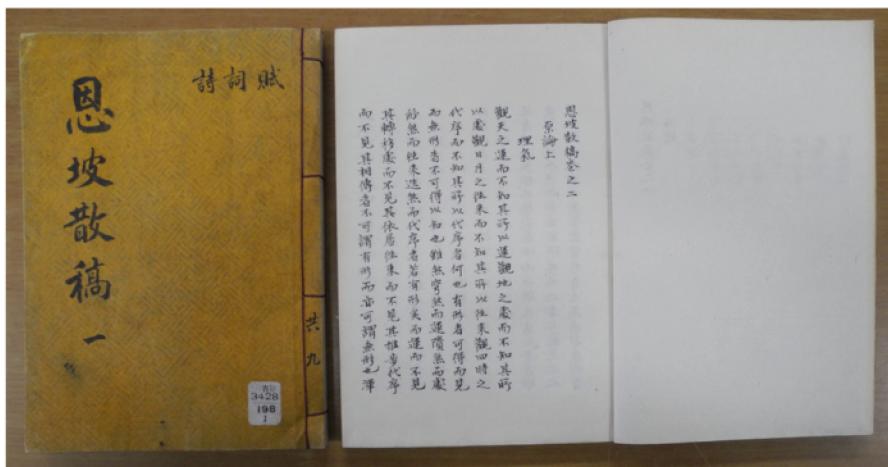
다음으로 규장각소장본 〈古3428-198〉은 도합 9책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술한 필사본에 비해 제10·11책 『정변록』(定辨錄)을 제외한 것 외에는 체재상의 차이가 없다. 표지의 서뇌(書臍) 하단에 ‘共九’라고 적혀 있고, 마지막 제9책의 권차(卷次)가 ‘卷之八’로 매겨져 있으며, 인찰지를 사용하지 않았다.⁵⁾

각 책마다 뒤표지 후면에 “昭和六年四月, 沈鍾舜氏所藏寫本ヨリ謄寫ス”라는식의 등사기(謄寫記)가 적혀 있다.⁶⁾ 이로 보건대 〈古3428-198〉 역시 청송심씨가

4) 심낙수와 심종순의 관계에 대해서는 青松沈氏大同世譜刊行委員會, 2002 『青松沈氏大同世譜』 1권, 970면 및 3권, 1187면 참조.

5) 〈古3428-198〉본의 형태서지는 다음과 같다. 선장본(線裝本: 四針眼, 紅絲)이고, 책크기는 27.1×19.4cm이다. 무곽(無郭)에 무계(無界)이고 10항(行) 20자(字)이다.

소장본의 후사본이다. 즉, 심낙수 문집의 등사작업이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그 중 1929년에 성립된 것이 〈奎15680〉본이고 1931년에 성립된 것이 〈古3428-198〉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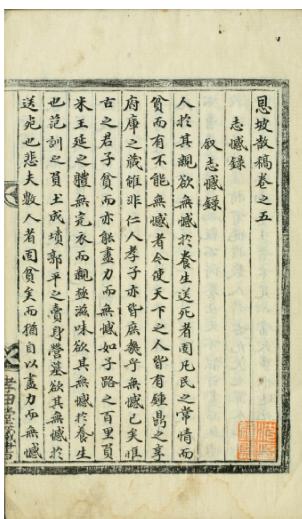
〈도판 2〉 규장각소장본 〈古3428-198〉 제1책 표지 및 제2책 본문 제1면

그런데 베클리대소장본은 인찰지의 판식과 장서인을 고려해볼 때 본래 청송심씨가 소장본이었음이 분명하다. 판구(版口)에 “孝田堂藏書”라고 찍힌 심노승(沈魯崇, 1762~1837)의 사고지(私稿紙)를 사용하고 있고, “青松沈魯崇印” 및 “沈鐘舜印”이라고 새겨진 백문방인(白文方印) 두 과(顆)가 찍혀 있기 때문이다.⁷⁾

-
- 6) 각 책마다 등사시기가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다. 제1~3책은 1931년 4월, 제4~5책은 같은 해 5월, 제6책은 4월, 제7책은 6월, 제8책은 5월, 제9책은 4월에 필사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다. 〈古3428-198〉의 등사에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했고 그들 간에 일정한 작업 배분이 이루어졌던 듯하다.
 - 7) 베클리대소장본이 판심에 ‘孝田堂藏書’가 박혀 있고, 심노승과 심종순의 인장이 찍혀 있다는 점은 김영진, 2014 「『孝田散稿』 해제」 『(영인본) 효전산고』, 학자원, 6면, 주석12번에서 언급되었다. 장서인 중 “青松沈魯崇印”이라고 새겨진 백문방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심노승 편(編) 『사천시선비』(槎川詩選批), 심노승 저(著) 『적선세가』(積善世家)에 찍힌 장서인과 동일한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제시하는 베클리대소장본 『은파산고』의 이미지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도판 3〉 버클리대소장본
제1책 본문 제1면



〈도판 4〉 버클리대소장본
제5책 본문 제1면



〈도판 5〉 제1책
青松沈魯崇印



〈도판 6〉 제5책
沈鐘舜印

암인(押印) 위치를 보면, 제1책부터 제4책까지 본문 제1면 우측 하단에 ‘青松沈魯崇印’이 찍혀 있고, 제5책부터 제8책까지 같은 자리에 ‘沈鐘舜印’이 찍혀 있다. 따라서 ‘青松沈魯崇印’이 일괄적으로 먼저 찍혀졌고, 추후 ‘沈鐘舜印’이 찍혀졌음을 알 수 있다.⁸⁾ 즉, 심노승이 소장했다가 어느 시기에 심노암의 집안으로 넘어가서 심노승의 종손(從孫)인 심종순이 소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한 규장각소장본 필사본 두 종이 이것을 저본으로 해서 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규장각소장본 중 〈古3428-198〉은 8권 9책으로 이루어져 있어, 버클리대소장본과 체재가 유사하다.⁹⁾ 또한 축자적 대조에 의해서도 수록내용상의 차이를

8) 그밖에도 제1책의 본문 제5면에, 수록차서로 볼 때 두 번째 작품의 작품명 아래에도 ‘沈鐘舜印’이 찍혀 있다. 일반적으로 한질을 이루는 문집의 경우 첫 번째 책에 장서인을 찍으므로, 이 역시 제1책의 본문 제1면에 찍힌 심노승의 인장을 감안해 암인 위치를 정한 것이다.

9) 버클리대소장본은 목록집에 ‘8권 9책’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해당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8권 8책이 소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총책수가 다르지만, 규장각소장본 〈古3428-198〉에서 제9책 부록이 제외된 것 외에는 내용 및 체재상의 큰 차이는 없다. 버클리대소장본의 실제 권책수 조사는 박현숙 박사(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전임강사)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그밖에 버클리대소장본의 형태서지는 다음과 같다. 선장본(線裝本: 五針眼, 紅絲)이고, 책크기는 27.0×18.1cm⁰

발견하기 어렵다. 더욱이 벼클리대소장본에서 주목(朱墨)으로 자구(字句) 교정이 가해진 경우, 〈古3428-198〉본은 벼클리대소장본의 상태를 가급적 그대로 모사하고 있다. 예컨대 제2책 수록작 「이기」(理氣)의 ‘吾知其無形者理而有形者亦爲理乎?’에서 ‘吾’와 ‘知’ 사이에 ‘末’자를 주목으로 덧붙여 쓴 것, 제8책 수록작 「김귀주전」(金龜柱傳)의 “南黨遂言完寧罪死蘇齋進庸”에서 ‘蘇’자의 위에 주목으로 ‘疎’자를 덮어쓴 것은, 〈古3428-198〉본이 벼클리대소장본의 원문과 교정사항 뿐만 아니라 그 수정방식까지도 그대로 본뜬 결과이다.¹⁰⁾

한편 〈奎15680〉은 제1책과 제3책의 판구(版口)에 ‘효전당장서’(孝田堂藏書)라고 적혀 있어, 심노승 사고지의 형태를 일부 재현해내고 있다. 그러나 벼클리대소장본과 비교해볼 때 총책수가 다르고 자구상의 출입(出入)이 간간히 확인된다. 예컨대 제3책에는 「영창대군치제문」(永昌大君墓致祭文) 본문 제목 바로 앞에 ‘응제제문’(應製祭文)이라는 문체명을 개행해 기입한 반면 벼클리대소장본과 〈古3428-198〉은 문체명 표시를 생략하고 바로 해당 작품을 필사하였다. 또한 〈奎15680〉은 벼클리대소장본과 관련 없는 독자적인 오기(誤記)가 다수 등장하는데 대부분 수정되긴 했지만,¹¹⁾ 앞서 〈古3428-198〉이 벼클리대소장본의 원형을 재구하기 위해 오류까지 딱습한 후 수정을 더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아울러 〈古3428-198〉은 벼클리대소장본의 서미(書眉)에 기입된 본문의 교감사항도 필사해놓고 있는데 비해 〈奎15680〉은 해당 정보가 전혀 필사되어 있지 않다. 마

다. 필사본이되, 인찰지[四周雙邊, 半郭(19.7×13.9), 內向二葉花紋魚尾]를 사용하였고 유계(有界)에 10항(行) 20자(字)이다. 이에 대해선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벼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수집 한국고전적 목록』, 174면 참조.

10) 단, 벼클리대소장본의 서미(書眉)에는 교감사항이 두 곳에 적혀 있는데, 이 중 제8책의 「황강어록」(黃江語錄)에 가해진 교감사항[櫟翁傳‘綿綿殘陽’是愷能疏與此異]은 〈古3428-198〉에 그대로 필사되었으나, 제4책의 「의사정려기」(義士旌閭記)에 가해진 교감사항[上之十七年年癸丑(正祖)]은 필사되지 않았다. 후자의 교감사항은 〈古3428-198〉의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奎15680〉에는 양자의 교감사항이 모두 필사되지 않았다.

11) 〈奎15680〉은 「책문」(策問)에서 ‘貴’을 ‘貴’로 필사하고 「정이환전」(鄭履煥傳)에서 ‘懲’을 ‘態’로 필사하는 등 자형(字形)의 유사에 의한 오기가 많다. 또한 「이상지에게 부치다」(寄李像之)에서 ‘滾滾’을 ‘滾’으로만 필사한 것과 같이, 첨어(疊語)의 경우 한 글자를 빼고 필사한 예도 다수 발견되는데, 이런 식의 오류는 대부분 수정되었다.

지막으로 〈古3428-198〉은 제9책의 권차(卷次)가 ‘卷之八’로 매겨져 있어 8권 9책으로 구성된 데 반해, 〈奎15680〉은 해당 권차표시가 ‘卷之八’에서 ‘卷之九’로 수정되었고 총 11책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사항으로 미루어 보건대 규장각소장본 『은파산고』 두 종은 모두 청송심씨가 소장본을 저본으로 필사된 것이되, 〈奎15680〉의 필사저본과 〈古3428-198〉의 필사저본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을 개연성이 있다. 즉, 심종순 집안에 소장된 『은파산고』는 최소 두 종 이상이었고 두 종 모두 심노승의 관여 아래 제작된 동일 계열의 필사본이되, 하나는 『정변록』까지 포함해 도합 11책이고, 다른 하나는 부록까지만 포함해 도합 9책이었을 것이다. 그중 9책으로 구성된 것이 〈古3428-198〉의 필사저본이자 베클리대소장본이고, 11책으로 구성된 것이 현재 유실되었지만 〈奎15680〉의 필사저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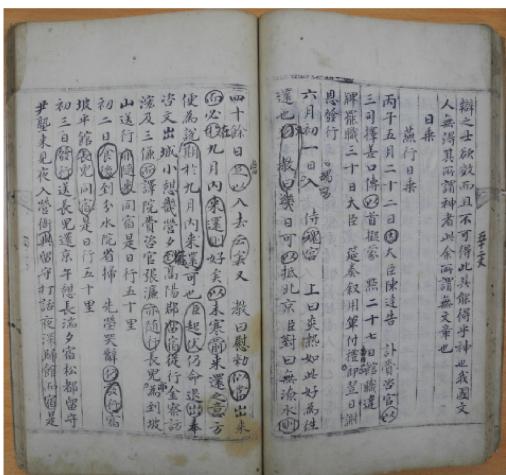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살펴볼 규장각소장본 〈古3428-820〉은 낙질본(落帙本)이다. 현재 제4책, 제5책, 제7책, 제13책, 제14책이 남아있다.¹²⁾ 낙질된 부분이 많고 총책수 표시가 없으며 체재가 정연하지 않다. 따라서 남아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원형을 재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점은 다음 절에서 수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필사본간의 상호관계를 비정하기 위한 중요 정보만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古3428-820〉은 본문의 작품명 위에 권점(圈點)이 찍혀 있거나 산삭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클리대소장본의 수록작 선정과 관련이 있다. 〈古3428-820〉의 제5책에서 제목 위에 권점이 찍힌 편지는 모두 베클리대소장본에 수록되었고, 산삭을 지시하는 ‘ㄱ’의 갑쇠 표시가 있는 편지는 베클리대소장본에서 예외 없이 누락되었다. 일례로 심낙수가 정민시(鄭民始, 1745~1800)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산삭이 지시되었으므로, 베클리대소장본과 그 후사본에서는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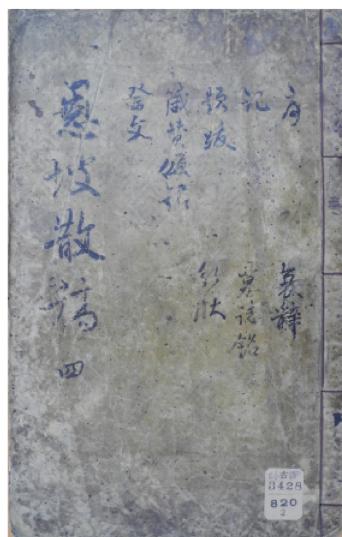
12) 〈古3428-820〉의 제13책은 제3책으로 오독되어 현재 도서번호가 매겨져 있다. 표지에 기입된 책수표시 ‘十三’에서 ‘十’의 글자가 박락되고 ‘三’의 글자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체 수록 내용과 체재를 검토해서, 본고에서는 이 책을 제13책으로 정정해 인용한다. 그 외 〈古3428-820〉본의 형태서지는 다음과 같다. 선장본(線裝本: 五針眼, 紅絲)이고, 책크기는 대소부동(제4책, 제5책, 제7책, 제13책은 30.4×18.6cm, 제14책은 28.3×18.9cm)이다. 인찰지[四周雙邊, 半郭(22.1×14.3), 上下向一葉花紋魚尾]를 사용하였고, 유계(有界)에 10행(行) 20자(字)이다.

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제5책에서 권점이 찍힌 편지는 제목의 위 혹은 아래에 ‘一’, ‘二’, ‘三’과 같은 숫자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클리대소장본의 수록차서를 나타낸다. 예컨대 「경이에게 답하다」(答慶而)의 제목 위에 “八”이 기입된 편지는, 베클리 대소장본에서 「이경이에게 보낸 편지」(答李慶而書) 총 12편 가운데 여덟 번째로 수록되었고, 「권어르신께 올리다」(上權丈)의 제목 아래에 “七”이 기입된 편지는 베클리대소장본에서 권진응(權震應, 1711~1775)에게 보낸 편지 총 12편 가운데 일곱 번째로 수록되었다. <古3428-820>은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으므로 여러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집필시기에 따라 뒤섞여 있는 반면, 베클리대소장본은 수신자별로 편지를 묶고 그 안에서 다시 연대순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古3428-820>의 해당 숫자 표기는, 연대순으로 편차된 편지를 수신자(受信者) 단위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신자별 편지 수량을 산정하고 그 수록차서를 매긴 결과이다.



<도판 7> 규장각소장본 <古3428-820> 제5책
「연행일승」



<도판 8> <古3428-820> 제4책
표지

나아가 <古3428-820>은 여러 곳에서 본문의 자구(字句)를 수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정 사항은 일괄 버클리대소장본에 반영되었다. 대표적 예로 제5책에 수록된 「연행일승」(燕行日乘)에는 상당한 분량의 교정이 가해졌다.¹³⁾ 1786년 6월 1일조 일부를 들면 “六月初一日，入侍魂宮。上曰：‘炎熱如此，好爲往還也。’仍教曰：‘幾日可以抵北京？’臣對曰：‘無潦水則四十餘日，足以入去云矣。’又教曰：‘慰勅似當出來，而必於九月內來還則好矣。以未寒前來還之意，方便爲說，期於九月內來還可也。’臣起伏，仍命退出，奉咨文出城”에서 밑줄 친 ‘魂宮’의 위치를 ‘入’의 앞으로 옮기고, ‘足以’를 ‘當’으로 바꾸며, ‘於’를 ‘在’로 고치고, 진하게 표시된 글자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되어 있다. 버클리대소장본은 이와 같은 교정사항을 전부 반영해 해당 구절을 “六月初一日，魂宮入侍。上曰：‘炎熱如此，好爲往還也。幾日可抵北京？’臣對曰：‘無潦水四十餘日，當入去’”으로 고쳐 놓았다. 그밖에도 문장의 간결성을 위해 ‘因’, ‘而’, ‘之’, ‘以’와 같은 허사를 생략하거나 ‘書示’ 등의 반복적 표현을 삭제하라는 식의 교정이 일괄 버클리대소장본에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권점, 수록차서 표시, 본문의 자구 수정으로 보건대 〈古3428-820〉은 버클리대소장본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버클리대소장본이 심낙수의 작품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정고본(定稿本)이라면, 〈古3428-820〉은 그러한 정고본의 편집 저본이자 초고본(草稿本)인 것이다.¹⁴⁾ 그리고 앞서 검토했듯 〈古3428-198〉은 버클리대소장본의 후사본이고 〈奎15680〉은 버클리대소장본과 동일계열의 필사본의 후사본이므로, 현존하는 심낙수 필사본 문집은 규장각소장본 〈古3428-

13) 규장각에는 심낙수의 「연행일승」이 별도의 독립된 책자로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古3428-820〉의 수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필사기에 따르면, 이 책은 1933년에 후지쓰카 츠카시(藤塚鄰)의 소장본을 후사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또한 『恩坡散稿』五·内'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정고본에는 「연행일승」이 제7책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필사기에서 말하는 『은파산고』는 초고본 〈古3428-820〉을 가리킨다.

14) 〈古3428-820〉이 정고본의 편집저본이기는 하나 〈古3428-820〉에서 정고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 교정이 이루어졌다. 〈古3428-820〉 제13책에 수록된 “耽羅島中有思美岳，感恩川，遂爲思美感恩歌，諺翻各三疊”이라는 제목의 시는 버클리대소장본에서 “思美感恩歌”的 제목으로 바뀌어 수록되었다. 이러한 예는 전체 수록내용으로 보면 소수이긴 하나, 〈古3428-820〉을 저본으로 정고본이 제작되는 단계에서 소폭의 보완작업이 있었음을 예상케 한다.

820〉 → 버클리대소장본 → 규장각소장본 〈奎15680〉, 〈古3428-198〉으로의 계통이 성립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은파산고』 네 종의 성격과 상호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은파산고』 필사본의 종류와 상호관계

본고의 지칭 서명	총책수	성격	상호관계
규장각소장본 〈古3428-820〉	14책 ¹⁵⁾	초고본	정고본의 편집자본
버클리대소장본	8책	청송심씨가 구장본 ¹⁶⁾ (青松沈氏家 舊藏本)	정고본
규장각소장본 〈奎15680〉	11책	완질본 1929년 성립	정고본의 후사본
규장각소장본 〈古3428-198〉	9책	1931년 성립	정고본의 후사본

3. 초고본과 정고본의 비교

심낙수의 필사본 문집이 하나의 계통을 이룬다는 점은, 『은파산고』의 정고본을 만든 인물이 초고본의 성립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더욱이 정고본인 버클리대소장본이 심노승 사고지에 필사되었으므로,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심노승이 부친 심낙수의 『은파산고』를 편찬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만으로는 심낙수의 저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글이 수습된 시기는 언제이며 그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떤 형태를 띠었는가, 여기에 어떤 식의 편집이 가

15) 규장각소장본 〈古3428-820〉의 총책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론한다.

16) ‘구장본’이란 ‘지금은 소장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소장했던 문현’을 의미한다. 청송심씨가 소장본 『은파산고』는 현재 유전되어 버클리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청송심씨가 구장본’으로 명명해야 한다. 본고는 현재 시점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청송심씨가 소장본’과 ‘청송심씨가 구장본’이란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였다.

해져 정고본이 만들어졌고 이로써 정고본이 갖게 된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답할 수 없다.

이 일련의 문제는 십낙수 문집 중 가장 초기형태인 〈古3428-820〉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감으로써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전술한 바 〈古3428-820〉은 제4책, 제5책, 제7책, 제13책, 제14책만 있는 영본(零本)이다. 총책수표시가 없으나 적어도 14책 이상이었을 것이므로 결본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한다. 따라서 남아있는 정보를 단서로 삼아 본래의 형태에 다가서는 작업이 요청된다.

먼저, 〈古3428-820〉은 표지정보와 수록내용으로 보건대 본래 원집(原集)과 속집(續集)으로 나누어 편성되었다. 제4, 5, 7책은 문체별 혹은 주제별로 작품이 휘집되어 있고, 표지에 해당 문체명(文體名) 혹은 편명(篇名)이 기입되어 있다. 반면 제13책과 제14책은 연대순으로 시문이 뒤섞여 수록되어 있고, 표지에 각각 “詩文續集”, “續集”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집과 속집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즉, 원집과 속집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수록작의 저술시기를 추적해보면, 원집과 속집의 경계는 1791년 즈음을 기점으로 한다. 제13책과 제14책은 1791년 즈음부터 몰년까지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고, 제4, 5, 7책은 그 이전에 제작된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비교를 위해 정고본의 수록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총 26편의 기문이 실려 있는데,¹⁷⁾ 〈古3428-820〉의 제4책은 그중 21편을 신고 있고, 제13책은 나머지 5편을 신고 있다. 초기 작부터 저자가 1791년 평안북도 희천군(熙川郡)의 군수로 재직하였을 때 전반기 작품은 원집인 제4책에, 그 이후의 작품은 속집인 제13책에 실려 있는 것이다. 제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정고본에는 총 2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古3428-820〉의 제4책은 그중 12편을, 제13책은 나머지 10편을 수록하고 있다. 1790년에 심노승이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자 지은 「장자 노승의 진사과에 오름을 선묘에 고하는 글」(長子魯崇登進士告先墓文)까지가 원집에 실려 있고, 그 이후의 제문은 일괄 속집에 실려 있는 것이다.

17) 정고본 수록작 중 「금선대에서 부처에게 공양하는 글」(金仙臺供佛疏文)은 내용상 기문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권별목록에 제시된 분류법에 따라서 기문으로 간주한다. 이하 본고의 문체별 분류와 편수 산정은 모두 정고본 『은파산고』의 권별목록에 의거한다.

따라서 〈古3428-820〉은 본래 원집과 속집으로 편성되었고, 1791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작품은 원집으로 묶이고, 그 이후의 작품은 일괄 속집으로 묶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결본 포함 총책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古3428-820〉의 속집은 연대순 편성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13·14책은 1791년부터 몇년까지의 저술을 충망라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정고본에는 총 189제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차서상 시제 기준 174번째부터 188번째 작품까지는 제13책에 수록되었고, 189번째 작품은 제14책에 수록되었다. 특히 제14책에 실린 「승릉침랑 심덕승에게 부치다」(寄崇陵寢郎沈德承)는 1798년작으로 심낙수의 생애 마지막 시이다.¹⁸⁾ 산문도 마찬가지여서 속집에는 족숙 심희영(沈喜永, 1730~1794)의 죽음에 부친 제문을 비롯해서 「형조참의를 사직하는 소」(辭刑曹參議疏)에 이르기 까지 노년기의 산문을 아우르고 있다.¹⁹⁾ 따라서 속집의 연대순 편성방식을 고려해본다면 제14책을 끝으로 속집이 완결되었다고 보아야 온당하다.

또한 〈古3428-820〉의 본문에 기재된 각종 편집사항은, 이 필사본의 속집이 제13책부터 시작해서 제14책으로 종결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왜냐하면 속집의 수록작에는 작품 제목 위에 정고본의 수록차서를 뜻하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제13책의 첫 번째 수록 시에는 ‘一’이 표시되었고, 작품마다 숫자가 더해져 제14책의 마지막 수록 시에는 ‘四十五’가 표시되었다. 속집의 첫 번째 책이 제13책이었으므로 수록차서 표시가 ‘1’에서부터 출발해 ‘45’로 마감된 것이다.²⁰⁾

18) 심낙수는 1799년 음력 1월 11일에 태계하므로, 1798년작이 현존작 중 가장 말년작이다.

19) 「형조참의를 사직하는 소」는 1796년 6월에 형조참의에 제수되자 그 사직을 요청하는 글로, 이 상소를 마지막으로 심낙수는 20여년의 관직활동을 완전히 끝내고 침거(蟄居)에 든다. 이에 대해선 沈魯巖, 『恩坡散稿』第9册, 「先考退士府君行狀」; 『日省錄』正祖 20年 6月28日條 참조.

20) 산문도 마찬가지인데 그 양상이 조금 복잡하다. 제문을 보면, 원집에 수록된 「남원토지신에게 제사드리는 글」(祭南園土神文)에는 ‘六’, 속집에 수록된 「병사 민의혁 제문」(祭閔兵使義赫文)에는 ‘一’, 「조묘 고문」(祧廟告文)에는 ‘十四’가 표기되어 있다. 해당 작품은 정고본에서 각각 13번째, 8번째, 21번째에 수록되었다. 따라서 정고본의 편집자가 원집과 속집을 오가며 수록차서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제4책의 제문과 제13·14책의 제문을 합치면 정고본의 수록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므로 제13·14책 외에 별도로 속집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하면, 〈古3428-820〉은 결본 포함 총 14책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제1책부터 제12책까지가 원집에 해당하고 제13책과 제14책이 속집에 해당하며, 원집과 속집의 경계는 저술시기 기준 1791년경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해서 〈古3428-820〉의 편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규장각소장본 〈古3428-820〉의 편성

체재	책차	표지정보	수록내용 및 작품편수	저작시기
원집 1~12	4	序、記、題跋、箴贊頌銘、祭文、哀辭、墓誌銘、行狀	序9, 記21, 題跋4, 箴2, 贊6, 頌3, 銘6, 祭文12, 哀辭2, 墓誌銘6, 行狀1	1760년경~1791년 (定阡志: 1770년경) (貽後錄: 1770년) (燕行日乘: 1786년)
	5	書牘、雜著、燕行日乘	書52, 婚書3, 雜著15, 燕行日乘1	
	7	定阡志	定阡志7, 先誌6, 賴後錄(上)1	
속집 13~14	13	詩文續集	詩類 16題45首, 歌詞1, 文類31	1791년~1798년
	14	續集	詩類 1題5首, 文類13	

한편 〈古3428-820〉의 편성상의 특징은 심낙수가 생전에 자신의 저작을 정리해 놓았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무엇보다도 원집과 속집의 수록작이 1791년경을 기점으로 나뉜다는 점은, 심낙수의 글이 이 시기를 전후로 일차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예증해준다.

실제로 심노암은 부친의 유고에 대해 회고하기를 “저술로는 「원론」(原論) · 「통변」(通辨) · 「오행일원만수도」(五行一原萬殊圖) 1권, 『지감록』(志感錄) 1권, 『정천지』(定阡志) 1권, 『정변록』(定辨錄) 2권, 시문(詩文) 14권이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하였다.²¹⁾ 〈古3428-820〉은 결본이 많으므로 심노암 증언와의 일치여부를 일일이 논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언급은 심낙수가 생전에 자신의 글을 상당 수준 정돈해놓았음을 감지케 한다. 왜냐하면 해당 언급이 이루어진 1803년은 심낙수 사후 얼마 안 된 시점이고 당시 심노승 형제는 벽파 집권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바 정황상 부친의 글을 수습해 편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

21) 심노암, 앞의 글 “所著「原論」、「通辨」、「五行一原萬殊圖」一卷, 『志感錄』一卷, 『定阡志』一卷, 『定辨錄』二卷, 詩文十四卷, 藏于家.”

다. 그러므로 심낙수 생전에 자편(自編) 문집이 존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울러 〈古3428-820〉 원집의 제작 시기는 심낙수 생애의 중요한 전환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심낙수는 1775년에 관계에 진출한 후 주로 중앙정계에서 활약 하다가 강경한 언사로 인해 1788년 흥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다.²²⁾ 그리고 다음해 해배되자 여생을 향리인 파주에 퇴거하겠다고 마음먹고 자호(自號)를 ‘은파’(恩坡)로 바꾸었다.²³⁾ 비록 해배 후 1791년부터 외직(外職)에 나아가지만, 유배기를 기점으로 그는 중앙정계에서 이루지 못한 정치적 이상을 글쓰기로 풀어내는 데 주력한다. 예컨대 『정변록』과 「열전」을 집필하여 영정조대의 시비(是非)와 충역(忠逆)을 가르는 역사기술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들 저작의 정리에 심노승 형체가 동원되었다는 증언이 있어 주목된다. 먼저, 심노암의 기록에 따르면 부친이 전남 흥양현 유배지에서 『정변록』을 집필하자 그가 곁에서 모시면서 선사(繕寫)를 담당했다고 한다.²⁴⁾ 그리고 심노승의 『산해필희』(山海筆戲)에 보면,

지난날 서군(西郡: 평안북도 희천군)에 있을 때 겨울밤 매번 「열전」(列傳) 초고(草稿)를 받아들이 필사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교정을 명하셨으니, 이렇게 하는 것을 날마다 일과로 삼았다.²⁵⁾

라고 하여, 심낙수가 희천군수 재임시에 심노승에게 「열전」의 선사와 교감(校

22) 심낙수는 삼사(三司)의 언관(言官)으로 활동하면서 김귀주(金龜柱), 홍국영(洪國榮)의 탄핵에 앞장서고 김종수(金鍾秀), 유언호(兪彦鎬)와 시종 대립각을 세웠다. 이러한 강경한 행보로 인해 정조는 1788년에 그를 외직(外職)인 흥양현감(興陽縣監)으로 내보내는데, 심낙수가 불응하자 바로 같은 곳으로 정배(定配)시켰다. 이에 대해선 심노암, 앞의 글 및 『정조실록』 정조 12년(1788) 1월 18일조 참조.

23) “은파”는 성은(聖恩)을 입어 파산(坡山)에 퇴거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선 沈樂洙, 『恩坡散稿』 第4册, 「恩坡銘」 참조.

24) 이에 대해선 심노암의 다음 언급이 참조가 된다. 沈魯巖, 『恩坡散稿』 第9册, 「年譜」 “『定辨錄』上下編成。上編書英廟己巳以後事, 立綱目附斷論, 下篇敍私事。定是非, 卞忠逆, 取以名錄。魯巖赴觀留侍, 承受繕寫。”

25) 沈魯崇, 『孝田散稿』 第10册(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 「山海筆戲(癸亥錄)」 “昔年在西郡, 冬夜每承書「列傳」草藁, 既朝命勘定, 日視爲程。”

勘)을 맡겼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저자 사후에 자손이 유고를 정리한다는 통념과 달리, 흥미롭게도 심낙수 생전에 두 아들이 부친의 저술 정리를 도왔던 것이다. 그리고 심노암과 심노승이 선사했다고 한 『정변록』과 「열전」은 각각 1788년과 1791년경에 집필되었다.²⁶⁾ 따라서 이를 기록은 1788년에서 1791년경 사이에 심낙수 저술의 체계적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케 한다.

이와 같은 〈古3428-820〉의 편성방식, 심낙수의 생애사적 맥락, 심노승과 심노암의 증언을 조합해볼 때, 심낙수는 유배기인 1788년부터 자신의 저술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해서 1791년경 작업을 일단락해 원집을 만들었고, 그 이후의 글들은 계속 보태어 속집으로 엮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집을 가편집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록내용을 교정하였고, 그 작업에 두 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보면 〈古3428-820〉은 심낙수 생전 자편 문집 그 자체라고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심낙수 자편 유고에 근접한 초고본’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한다. 심노암은 선부군 행장에서 “정천지(定阡志)가 유집(遺集)에 실려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앞의 〈표 2〉에서 보듯 〈古3428-820〉의 제7책이 바로 ‘정천지’이다.²⁷⁾ 그리고 〈古3428-820〉의 제4책에는 몇몇 작품에 평점비평(評點批評)이 가해졌는데, 이 비평은 정고본의 수록작 선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²⁸⁾ 유작의 정선(精選)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비평은 심낙수 생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古3428-820〉의 판식이 정고본에 활용된

26) 『정변록』의 집필시기는 沈樂洙, 『恩坡散稿』第4册, 「定辨錄序」 참조. 「열전」은 저술년도 표시가 없는데 수록내용을 보면 「당역열전」(黨逆列傳)에 1790년 김치인(金致仁)의 죽음이 기술되어 있고, 같은 해 이루어진 유언호(兪彦鎬)의 해배(解配) 및 판중추부사직(判中樞府事職) 제수까지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1791년경 집필된 것으로 짐작된다.

27) 沈魯巖, 『恩坡散稿』第9册, 「先考退士府君行狀」“四十六年庚寅三十二歲, 正月行祖考學生公墓厝之禮, 有『定阡志』載集中。” 진한 글씨의 강조는 인용자에 의한 것이다. 이하 모두 같다.

28) 〈古3428-820〉은 제4책에만 제하평(題下評)과 방점(旁點)이 가해져 있는데, 제4책의 수록작은 모두 정고본에 실렸으므로 이 평점비평은 정고본의 수록작 선정과 무관하다. 이와 관련해서 제4책의 평점비평을 누가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심노승 사고지는 물론이요, 심노승이 편한 여타 필사본의 판식과도 다르다는 점 역시 〈古3428-820〉의 편찬주체가 심낙수라는 주장을 방증한다.²⁹⁾

그런 점에서 규장각소장본 〈古3428-820〉은 ‘저자의 자편 유고에 근접한 초고본’이라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가 높을 뿐더러, 자편문집이 증가하고 평점비평이 성행하던 조선후기 문집편찬의 특징을 여하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출판문화사적 의미가 있다.³⁰⁾

이처럼 『은파산고』 초고본이 심낙수 생전에 성립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는 여기에 어떤 식의 편집이 가해져 정고본이 만들어진 것인지 짚어보기로 한다. 초고본과의 비교를 위해 완질본 〈奎15680〉의 편성을 정리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규장각소장본 〈奎15680〉의 편성

책자	수록내용 및 작품편수	저작시기
1	詩類(賦1, 歌詞2, 詩: 189題 414首)	1773~1798년
2	文類(原論15, 太極圖例1, 太極圖序1, 三教通辯1, 策3, 講義1)	1772~1779년
3	文類(疏22, 箴1, 啓1, 狀7, 教書6, 不允批答1, 應製祭文7, 箋文4)	1778~1794년경
4	文類(序9, 記26, 題跋5, 篇2, 賛6, 頌3, 銘6, 雜著18)	1760년경~1796년경
5	文類(志憲錄4, 定阡志5, 墓誌銘8, 行狀1)	志憲錄: 1769년 定阡志: 1770년경
6	文類(述先志10, 賦後錄5, 祭文22, 哀詞2)	述先志: 1770년경 賵後錄: 1770년
7	文類(書53, 婚書3, 日乘1)	日乘: 1786년
8	文類(列傳: 純忠列傳16/黨逆列傳9, 語錄1)	列傳: 1791년경 語錄: 1788년
9	附錄(先考退士府君行狀1, 年譜1)	行狀: 1803년 年譜: 1807년
10	文類(定辨錄 上)	1788년경
11	文類(定辨錄 下)	1788년경

29) 〈古3428-820〉의 어미종류는 ‘上下向一葉花紋’인데 심노승이 편찬한 필사본 문헌에는 이와 같은 판식의 인찰자가 사용되지 않았다.

30) 자편문집의 증가를 비롯한 조선후기 출판문화의 제양상에 대해서는 김수진, 2013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추이와 그 특징」 『어문연구』 159, 353-373면; 김수진, 2013 「조선후기 간본문집의 편집경향」 『규장각』 42, 97-127면 참조.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은파산고』 정고본의 편성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문체별 분류와 주제별 분류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일종의 편명(篇名)으로 보아야 하는데, 엄밀하게 보자면 수록작의 내용에 따라 문체별로 재편집되었어야 한다. 일례로 제5책 ‘정천지’는 심낙수가 1770년에 파주 미륵산에 있는 선조의 묘소를 이장하면서 지은 글의 뜻으로, 도합 5편의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³¹⁾ 문체별 편집에 의하면 그 중 4편은 잡저(雜著) 혹은 필기(筆記)로 분류되고 나머지 1편은 기(記)로 분류되어 정고본 제4책에 수록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고본은 이러한 재편집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초고본의 편명과 분류법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앞의 〈표 2〉에서 보듯 초고본 제7책에는 ‘정천지’, ‘선지’(先誌), ‘이후록’(貽後錄)이 수록되어 있는데, 〈표 3〉에서는 ‘정천지’ 수록작 중 2편을 ‘이후록’으로 옮긴 것, 직계 선조에 대한 글을 모은 ‘선지’(先誌)가 ‘술선지’(述先志)로 표현이 약간 바뀐 것 외에는 정고본과 초고본 사이에 편성상의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지감록’과 ‘정변록’ 역시 심낙수 유고의 편명과 분류법을 취한 결과이다.

둘째는 수록작에 있어서도 정고본이 초고본의 내용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을 논외로 하면, 초고본 원집 가운데 제4책, 제7책 수록작은 모두 정고본에 실렸고, 제5책 수록작 중 이규위(李奎緯, 1731~1788)에게 보낸 편지 2편, 정민시에게 보낸 편지 2편만이 정고본에서 제외되었다. 초고본의 원집 수록작 가운데 정고본에 누락된 작품이 편지 4편에 불과하다. 속집 수록작 역시 시문 포함 62편 중 6편만이 정고본에서 누락되었다. 따라서 초고본에서 정고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록작의 산삭(刪削) 비율이 대단히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고본이 초고본 대비 새롭게 보강한 부분이 제9책 부록인데, 이 부록 역시 포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제9책은 저자에 대한 행장과 연보를 새로 신고 있는데, 행장 1편과 연보 1편이 한 책을 구성할 정도로 대단히 내용이 풍부하다. 그 중 행장은 심노암의 저작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기실 심노승의 상당한 수정이 더해진 것인데, “첨입한 것은 많고 덜어낸 것은 적어서 책자로 25장의 종이였던 것이 지금은 46장이 되었다”라고 술회할 정도로 심노승이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³²⁾ 즉, 『은파산고』 정고본은 초고본의 수록내용을 가급적 망라하는 방향으로

31) 정고본 제5책 ‘정천지’의 수록작은 「선산사실」(先山事實), 「점산시말」(占山始末), 「미륵산기」(彌勒山記), 「천평일기」(遷竈日記), 「천평절목」(遷竈節目)이다.

편집되었거나와 부록의 집필방식 역시 간결성이 아니라 포괄성을 위주로 한다.

셋째는 『정변록』을 제10, 11책에 신고 있어, 원집과 분리해 편차했다는 점이다. 앞서 심노암은 행장에서 부친의 유집을 「원론」 → 지감록 → 정천지 → 정변록 순으로 회고했다. <표 3>에서 보듯 「원론」은 정고본 제2책에, 지감록은 제5책 전반부에, 정천지는 제5책 후반부에 실려 있다. 그리고 문록(文錄) 중 지감록은 1769년에, 정천지는 1770년경에 저술되었으므로 심노암의 회고와 문록별 저술시기를 고려해보면, 1788년작 『정변록』은 정고본의 제8책 정도에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록 뒤에 『정변록』이 편차되어 있다는 점은, 『은파산고』 정고본 성립 당시 『정변록』이 별도의 책자로 분류되었다가 추후 정고본 안으로 다시 수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³³⁾

이상에서 살펴본 『은파산고』 정고본의 편성은, 심노승의 부친의 저술에 대한 편찬원칙이 바로 “계승과 부연”에 있다는 점을 확인케 한다. 그는 작품을 정선(精選)하고 체재를 정련하는 식의 주체적 편집을 지양하고, 초고본의 편성과 수록작을 최대한 보존하고 부연하는 방식을택하고 있다. 이를 두고서 일반적으로 정고본은 간본이 아니므로 간비(刊費) 절감을 위한 산삭이 긴요치 않았기 때문에이라고 반문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거니와 『은파산고』 정고본은 심노승이 생전에 간행을 염원했던 심낙수 문집의 최종 정리본이었다.

따라서 『은파산고』 정고본은 미완의 상태이기 때문에 체재의 비정련성, 수록 내용의 포괄성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편찬자 심노승이 부친 유고의 원형을 가급적 유지하고 계승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심노승은 그의 문집 『효전산고』에서 부친 유고의 편명과 수록내용을 이어 받아 ‘지사록’(志事錄), ‘술선지’, ‘이후록’ 등의 글을 남기었다.³⁴⁾ 그의 『효전산고』

32) 沈魯崇, 『孝田散稿』第10冊, 「山海筆戲」(癸亥錄) “泰倉所爲家狀草, 余始讀, 不謂其多費刪潤過加增削, 既而愈讀而愈知, 數字之點竄, 而拖至全行, 小節之刪改, 而仍及大旨” 要之, 添多而刪少, 所書冊子, 量廿五紙者, 今爲四十六紙。噫! 其多矣!”

33) 완질본 <奎15680>에서 제10·11책에만 권차수가 매겨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심낙수의 『정변록』이 별도의 책자로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은파산고』 소재 『정변록』 2책에 새로 속집 2책을 더해 도합 4책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속집은 1788년부터 1796년까지의 정치사를 다루고 있어, 1788년에 『정변록』이 완성된 후에도 저자 말년까지 지속적으로 기록이 덧붙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편성방식도 『은파산고』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 역시 기왕에 논의된 것처럼 심노승이 심낙수 문집을 편집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저술 정리에 부친의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요컨대 『은파산고』 초고본의 발굴을 통해 이루어진 초고본과 정고본의 비교는, 심노승의 편찬자로서의 주체적 면모보다는 심낙수에 대한 강한 계승의식, 부친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주목하는 방향으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4. 정고본의 형성과정

이상에서 판명된 것처럼 심낙수의 저작은 1788년에서 1791년경에 본격적인 정리작업이 수행되어 저자 생전에 자편 문집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저자 사후 어떤 단계를 거쳐 정고본이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해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심낙수 사후 극심한 가화(家禍)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작이 어떻게 보존되어 전래될 수 있었는지부터 생각해보기로 한다. 1799년 음력 1월 11일에 심낙수가 타계한 지 얼마 안 되어 1800년 6월에 정조가 서거하였다. 정조의 급작스러운 서거와 순조의 즉위로 노론 벽파는 신속하게 정국을 장악하고 시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01년 1월 1일 심낙수의 관직을 추삭(追削)시켰고 곧이어 2월 26일에 심노승을 경상남도 기장현(機張縣)으로 정배시켰다.³⁵⁾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던 정세 속에서 심노승이 남긴 1801년 1월 16일의 기록을 보기로 한다.

34) ‘지사록’은 『효전산고』 제13~15책에, ‘술선지’는 제17~20책에, ‘이후록’은 제30책에 수록되어 있다.

35) 심낙수 사후 관직 추삭 과정에 대해서는 沈魯巖, 『恩坡散稿』 第9冊, 「年譜」; 『순조실록』 순조 즉위년(1800) 12월 29일조 참조. 심노승의 탄핵과 유배에 대해서는 『순조실록』 순조 1년(1801) 1월 15일 및 2월 26일조 참조. 심노승의 유배기 글쓰기에 대해서는 김영진, 2013 「유배인 심노승의 孤獨과 文筆로써의 消愁」 『근역한문학』 37, 79-108면; 정우봉, 2013 「沈魯崇의 『南遷日錄』에 나타난 내면고백과 소통의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52, 261-305면; 정우봉, 2014 「沈魯崇의 自傳文學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과 자아 형상」 『민족문화연구』 62, 89-118면 참조.

16일에 대계(臺啓)의 소식을 들었다. 대계는 14일에 올려 졌는데 이날 오후에서야 비로소 듣게 되었다. (중략) 가사를 처리하고 집안의 고지(故紙)와 선군의 유필(遺筆)이 일실될까 두려워 다수 불태우고, 유고(遺稿)는 항아리에 담아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³⁶⁾

여기서 ‘대계의 소식’이란, 1801년 1월 15일에 이루어진 사헌부의 심노승 탄핵 대계를 말한다. 기장현으로 유배되기 전에 심노승은 사헌부로부터 강도 높은 탄핵을 받은 바 있는데, 인용문에서 보듯 짧은 시차를 두고 곧바로 그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그는 조만간 유배의 명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곧바로 부친의 문헌 정리에 들어갔다.

인용문에서 심노승은 밖으로 유출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유필은 소각하여 반대파의 공격의 빌미를 없애고 있으며, ‘유고는 항아리에 담아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앞서 고구한 것처럼 규장각소장본 〈古3428-820〉은 ‘저자의 자편 유고에 근접한 초고본’이므로, 여기서 심노승이 땅속에 묻었다고 회고한 유고는 〈古3428-820〉이거나 혹은 그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필사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문집편찬의 첫 단계는 저자 사후 여러 곳에 산재한 유문을 수습하는 작업인데, 심낙수의 유고는 저자 생전에 가편집되어 일정 부분 정리되었으므로 대대적인 수습 없이 항아리에 넣어져 땅속에 보관된 것이 아닌가 한다.³⁷⁾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유고를 땅속에 묻은 심노승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심낙수의 저작은 『은파산고』의 정고본은 물론이고 초고본까지 보존되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초고본 대비 정고본에서 새롭게 보강된

36) 沈魯崇, 『孝田散稿』第22册, 「自著紀年」“十六日, 聞有臺啓, 啓出在十四日, 而至是日午後, 始聞之。(中략) 處置家事, 家中故紙, 及先君遺筆, 恐或佚落多焚之, 遺稿甕藏, 挖坎而埋之。”

37) 그렇다고 해서 심낙수 사후 유문의 수습 작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799년에 민백준(閔百準)이 졸하자 심노승은 그의 아들인 민정현(閔靖顯)에게 편지를 보내어 선친의 유고 중에 심낙수 관계 문헌이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그런즉 심낙수의 자편 유고를 바탕으로 소폭의 수습 작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선 沈魯崇, 『孝田散稿』第8册, 「答閔哀靖顯」참조. 해당 글은 유정열 연구원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부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은파산고』 정고본은 부록에서 행장 1편과 연보 1편을 싣고 있다. 그 중 행장은 1803년에 심노암이 지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반면, 연보는 저작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다음 글은 연보 작업의 시점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상 한 편은 63칙(則)으로, 선군(先君) 퇴사부군(退士府君)의 연보(年譜)이다. 처음에 불초자 형제는 가장(家狀)을 가져가 고상(故相) 김희(金憲) 공께 묘지명을 부탁드리고자 했다. 김공께서 선군의 평소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김공께서 졸하셨고 이윽고 시사가 크게 변해 신유년(1801) 정월에 왕명이 떨어졌다. 불초배는 한 번 죽음으로 선군의 뜻을 밝히지도 못한 채 백씨는 영남으로 정배되고, 대계(臺啓)에서 불초자 노암의 유배도 운위되었으므로 형제 모두 유배되어 영결의 인사도 못 나누게 될까 두려웠다. 신유년(1801) 겨울 기장현 바닷가로 찾아뵈었을 때 백씨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선인의 행장은 본래 우리가 함께 의논하며 지을 생각이었지만, 내가 돌아갈 기약이 없으니 네가 만들어야겠구나.” 이에 불초자는 행장의 문체가 엄중하므로 우선 연보를 먼저 만들겠다고 청하였고, 백씨가 이를 허락해주었다. (중략) 임술년(1802) 정월 3일에 불초자 노암(魯巖)이 피눈물을 흘리며 쓰다.³⁸⁾

심노암의 「선군연보후서」(先君年譜後序)의 일부분이다. 인용문에 나오는 ‘63칙’이란, 연보의 대항목이 63조목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글에 따르면 심노승 형제는 부친 사후 행장 집필을 먼저 기획했지만, 1801년 심노승의 유배로 사정이 여의치 않자 동생 심노암이 그해 겨울 연보 집필에 착수해 다음해 1월경 작업을 일단락했다고 한다.

그런데 『은파산고』에 수록된 연보는 후서의 내용과 달리 64조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1802년 1월에 쓴 위의 글과 다르게, 『은파산고』의 연보에는 심노승이 부친의 무고함을 격쟁(擊錚)하여 추삭된 관직을 회복시킨

38) 沈魯巖, 『弟田遺稿』 卷5(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先君年譜後序」 “右一編, 六十三則, 我先君退士府君年譜也。始不肖兄弟, 欲以家狀, 乞銘於故相金公憲, 金公於先君志事平昔有深知也。狀未成, 金公卒, 既而時事大變, 有辛酉正月之命。不肖輩不能以一死明先人志, 伯氏謫嶺表, 臺啓又請竄不肖魯巖, 魯巖恐兄弟並謫, 失死生訣。辛酉冬, 往省于機張海上, 伯氏執手泣而教曰: ‘先人行狀, 始意兄弟議撰, 吾無還期, 汝可述也。’不肖以狀文體重, 請姑徐先編年譜, 伯氏許之。(中略) 壬戌正月三日, 不肖男魯巖泣血書。”

1807년의 상황까지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후서와 연보의 내용상 불일치는 아마도 심노승의 가필이 더해진 결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산해필회』의 1804년 기록을 보면, 기왕에 산정된 연보의 미진함을 거론하면서 다시 수정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은파산고』 연보의 주된 집필자는 심노암이고 적어도 1802년에 그 초고가 완성되었으되, 이후 심노승의 주관 아래 수정되어 1807년의 내용까지 추록(追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후서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애초에 심노승 형제가 우의정 김희(金憲, 1729~1800)에게 부친의 묘지명을 의뢰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묘도문자(墓道文字)를 부탁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생평에 대한 기본 자료가 필요하므로 행장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데, 행장 집필이 완성되기도 전에 김희가 죽하여 계획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한다. 흔히 조선시대 문집의 부록에는 저자가 생전에 교유했던 문인이 지은 제문, 묘지명 등이 함께 수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은파산고』에는 심노승 형제가 쓴 행장과 연보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은파산고』 부록의 특징은 심낙수의 개별자로서의 행보와 정고본 성립 당시 정국이 맞물리면서 생긴 결과이다.

기실 심낙수는 유년기를 향리인 파주에서 보냈고, 세 살에 부친을 잃고 독학(獨學)으로 대과에 장원급제해 관계에 진출한 후부터는 시종 무당(無黨)의 입장 을 견지했다. 즉, 혈연·지연·학파·정파로 연결된 특정 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 평생의 지기로 손꼽을 수 있는 인물은 이규상(李奎象, 1727~1799) 정도인데, 이규상은 심낙수 사후 열흘도 안 되어 세상을 떴다. 게다가 심노암이 후서를 쓸 당시에는 심낙수와 문장관을 공유했던 족숙 심익운(沈翼雲, 1734~1783)도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 가까웠던 서유린(徐有隣, 1738~1802), 이제만(李濟萬, 1738~1810), 김이익(金履翼, 1743~1830) 등 몇몇 시파계 인물 도 순조 집권으로 대부분 유배에 처해졌다.⁴⁰⁾

39) 沈魯崇, 『孝田散稿』 第11册, 「山海筆戲」(癸亥錄) “家狀完本, 未知如何, 刪潤而謂之完本耶? 昨夏成書送後, 至今思之, 果多有脫漏處, 不但泰僕所謂文字不雅馴之病而已。計待相對, 可以議定, 所示如此, 未知果如吾見處耶。年譜, 其時吾所刪正之本, 亦果有未盡者, 此又安得不更入商量也? 言行記, 此事四年未就, 非但爲憂病所格, 此亦見不孝不誠之一端, 有念及此, 惕然憂懼。”

그러므로 심노승 형제는 부친 사후 묘도문자를 의뢰할 만한 적합한 인물을 구하기 힘들었을 터이고, 그나마 김희에게 의뢰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부득불 자신들의 저작으로 부록을 충당한 것이다.

그러면 연보에 이어 행장의 저술경위를 짚어보기로 한다. 다음은 심노승의 「가장(家狀) 초고의 뒤에 쓰다」(書家狀草藁後)의 한 대목이다.

이상 선고(先考) 퇴사(退士) 행장은 아우 노암이 지은 것이다. (중략) 불초자가 조정의 명을 받아 영외(嶺外)로 유배되매 출발할 적에 눈물을 흘리며 아우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정변록』과 「열전」 등의 글을 남기신 선군(先君)의 뜻을 어찌 이대로 끝나게 하겠는가? 대강(大綱)은 실로 국인(國人)이 알고 있지만, 선군께서는 표현을 완곡하게 하고 뜻을 은미하게 하는 데 치력하시어 한결같이 포폄(褒貶)의 의리를 취하셨으니 어찌 한 올의 사사로운 마음이 계셨겠는가? 장차 천하 후세 사람들이 볼 것이라 여기셨으니, 그 뜻이 사승(吏乘)보다 상세한 점이 있으셨다. 전시대는 국시(國是)가 정해지고 의리가 크게 밝혀진 시기임에도 이처럼 근심하셨거늘, 하물며 지금은 홍수가 하늘까지 닿고 불길이 땅을 태우는 시절이어서 고훈(誥訓)은 우레와 같고 관화(關和)는 금석(金石)과 같음에도 한 마디 말을 바꾸는 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되었으니 어찌 사승(吏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의 세상에서 선왕(先王) 시절의 대의(大義)를 찾아보고자 한다면 오직 선군(先君)의 행장에 대한 서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오호! 이것을 어찌 사사로운 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중략) 계해년(1803) 7월 초8일 불초고(不肖孤) 노승(魯崇)이 기장(機張) 바닷가 적려(謫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쓰다.⁴¹⁾

-
- 40) 심낙수와 이규상의 관계는 심노암의 다음 언급이 참조가 된다. 沈魯巖, 『弟田遺稿』 卷4, 「祭伯舅一夢先生文」 “嗚呼！吾先人處鄉寡交，而在朝無黨，平生執友，惟先生一人之賢，與先生遊，自吾母歸宜之年，相視兄弟，年彌久而誼彌堅。” 이제만, 김이익 등과의 관계는 심노승의 다음 언급이 참조가 된다. 沈魯崇, 『孝田散稿』 第21册, 「抱水餘痛集」 “同禍諸人，由公耆、金公履翼、李公羽晉、李公濟萬，皆先人執友。”
- 41) 沈魯崇, 『孝田散稿』 第16册, 「書家狀草藁後」 “右先退土行狀，弟魯巖所爲也。 (중략) 不肖被簡書，蒙恩謫嶺外，當行又泣而執魯巖手而言曰：‘『定辨錄』、『列傳』、諸書，先君所以作之之意，豈得已也？大綱固國人之所知，而眷眷致意於辭之婉而旨之微，一取乎褒貶之義，豈一毫私意也哉？將以爲天下後世之觀，其義有詳於史乘也。此在先朝，國是既定，義理大明之時，而尙爲之憂如此，況今日大浸界天，烈炎焦土，誥訓之若雷若霆，關和之如金如石，而一言而易之，曾反手之不若，史乘又何可信也？今之世欲究見先王之世之大義，惟先君行狀敍述是急，嗚呼！是豈可謂之私書也！’ (중략) 癸亥七月初八日，不肖孤魯崇泣血書于機張海上之謫廬。”

가장 초고란, 심노암이 쓴 행장 초고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산해필회」에는 가장 초고를 언급하면서 “수정을 6월 10일전에 시작하여 오늘 비로소 끝냈고, 한 책으로 서사(書寫)하여 마침내 일통문자(一統文字)를 만들어냈다”라고 되어 있다.⁴²⁾ 이로 보아 심노승은 심노암의 초고를 바탕으로 근 한 달간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1803년 7월에 행장 집필을 일단락하고 위의 글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인용문에서 심노승은 행장 저술을 『정변록』과 「열전」과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그 공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부친에 대한 행장 저술이 결코 사적인 작업이 아니며, 사승(史乘)을 대신할 만한 역사기술이라고 의미 짓고 있다. 이러한 의미화는 두 가지 의식에 추동되고 있는데, 하나는 부친 심낙수의 정치역정이 전시대의 역사를 반영한다는 의식이요, 다른 하나는 지금의 시절이 ‘홍수가 하늘까지 닿고 불길이 땅을 태우는 시절’이므로 조정의 사승을 믿을 수 없다는 우려이다. 생존 인물 중 부친의 삶을 증언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절박함에다가 벽파의 정국주도로 부친의 생애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심노승은 부친의 생평에 대한 기록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심노승 형제가 1801년과 1803년 사이에 연보와 행장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심노암이 초고를 담당하고 심노승이 수정을 더하는 방식으로 집필 작업을 배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행장은 1803년 7월에 1차 완성되었고, 연보는 적어도 1802년 1월에 초고가 만들어졌으리라 심노승의 관여 아래 1807년까지 추록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은파산고』 정고본의 부록은 심노승과 심노암의 공동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03년에 심노승은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행장과 「언행기」(言行記)를 함께 엮어 선집(先集)의 말미에 부록으로 넣으면 체재가 매우 좋을 듯하다’는 구상을 표명하기에 이른다.⁴³⁾ 행장과 연보 작업이 어느 정도 갈무리되자 정고본

42) 沈魯崇, 『孝田散稿』第10册, 「山海筆戲」(癸亥錄) “鉛槧始於六月旬前, 今日始卒業, 手寫爲一冊子, 遂成一統文字.”

43) 沈魯崇, 『孝田散稿』第10册, 「山海筆戲(癸亥錄)」 “狀草屬藁, 聞之幸甚. 如此大文字, 固不可以時日成者, 而曠久虛徐, 則爲文之氣力, 散逝不振, 吾每患有此病, 此義, 泰詹不可不知也. 言行記, 鉛槧之始, 三年于茲, 卒業尚遠, 日夕不勝憂懼. 並編爲附錄, 於先集之末, 起例甚好. 狀草如脫藁, 信便送視, 此事豈掩于今者, 亦不肖輩之罪也.” 이 글에서 ‘言行記’는 심노

의 부록과 체재를 숙고하는 단계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정고본이 최종 완성되어 청송심씨가 소장본이 탄생하게 된 맥락’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1824년 7월에 쓴 「이후록」(貽後錄)에서 심노승은 부친의 유고와 관련해서 후손들에게 아래와 같은 뜻을 전달하였다.

선군(先君)의 유집(遺集)은 유문(遺文)을 모으고 지문(誌文)과 연보(年譜)의 부록을 합해 아홉 권이다. 계산해보니 재력이 있다면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해지게 하는 데 불과 천금(千金)이면 되는데 지금까지 기대하기 어려우니, 길이 불초자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

그러나 생각해보매 평소 선군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았다. ‘근래 책을 인행하는 폐단이 과시를 즐기고 혀됨에 힘쓰는 한 가지 일이 되었다. 전해질 만한 책은 한유(韓愈)의 글이 구양수(歐陽脩)를 통해 널리 전해진 것과 같게 되므로, 자기 스스로 전해지기를 도모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반면 전해질 만하지 못한 책은 인행되면 다음 날 약방의 약 싸는 종이가 되어 저자거리에서 팔리게 되니, 이것은 무익한 일을 하여 유익함에 해를 끼친 격이고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무용한 허물을 더한 격이다. 책을 전하고자 했지만 웃음거리로 전해질 뿐이니, 선사(繕寫)하여 자손 대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당시의 풍속을 깊이 미워하시어 하신 말씀이었다.

선군의 유집은 치란(治亂)의 변화와 관계되므로 후대에 널리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시문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바가 있다. 그러나 불초자가 수년간 재량했건만 지금까지 종사하지 못한 채 재력은 부족하고 성의가 점점 쇠해져갔다. 이후로도 비록 감히 (간행을) 결단내리지 못할뿐더러 보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아이들과 삼종형제(三從兄弟)가 각자 선사(繕寫)해 세 부를 간직하여 대대로 보고 모범으로 삼는다면, 그런대로 가하다고 할 것이다.⁴⁴⁾

승의 「先府君言行記」를 말한다.

44) 沈魯崇, 『孝田散稿』 第30册, 「貽後錄-奉先」 “先君遺集, 衰粹並誌譜附錄爲九卷, 計有財力, 錄梓壽傳, 不過千金可得, 至今恐無可待, 永爲不肖沒身之恨, 抑念平日嘗教, 近世印書之弊, 喜夸驚虛之一事, 書可傳者, 韓文之得之於歐公, 無與於自以爲傳, 不可傳者開印, 明日爲藥舖摺裹, 市門賣塗, 作者已是作無益害有益, 而適以過多之費, 重其無用之累, 所欲傳者, 傳其笑耳, 不如繕寫, 爲子孫世世持守, 足矣, 此教, 深惡世俗而發也, 先君遺集, 有關於消長進退之變, 不可不布示來許者, 有重於詩文之傳, 不肖裁量屢年, 至今不得事, 力不周, 誠意寢衰, 繼此, 雖未敢斷意, 亦未敢保必, 兒輩三從兄弟, 各繕寫三本藏之, 世世視爲式, 可也.”

심노승의 이 글은 정고본, 즉 베클리대소장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다. 인용문의 전반부에서 그는 심낙수의 유집이 저술을 모은 것에 부록을 더해서 ‘아홉 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은파산고』 초고본과는 총 책수가 다를뿐더러 ‘부록’을 거론한 점을 보아 여기서 ‘유집’은 ‘정고본’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다. 따라서 정고본은 본래 원집과 부록의 도합 9책으로 구성되었고, 추후 『정변록』 2책이 더해져서 완질본 11책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용문에서 심노승은 『은파산고』의 간행을 염원했지만 ‘간비’(刊費)의 부족으로 간행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것은 현존하는 『은파산고』 정고본이 간행 준비를 위해 산생된 편집저본이 아니라, 간본을 대신해서 심노승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심낙수 유집의 최종정리본이었음을 알려준다.

일찍이 심노승은 1804년 즈음 유배지에서 심낙수 유고와 관련된 하나의 꿈을 꾸게 된다. 조진령(趙鎮寧, 1734~?)의 집을 찾아가 유고의 간행 문제를 논의하다가 문득 소요 비용을 헤아려보았다는 줄거리의 꿈이다.⁴⁵⁾ 연보와 행장 작업이 어느 정도 갈무리되고 정고본 부록에 대한 구상이 세워지자 곧이어 간비(刊費)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

본래 심노승 집안은 영의정 심지원(沈之源, 1593~1662)을 배출한 명문가였지만 증조부와 조부가 관계에 진출하지 못한 채 모두 20대에 요절했으므로 부친 심낙수는 젊은 시절을 매우 빈한하게 보냈다. 심낙수의 대과급제와 관직활동으로 얼마간 가세를 회복했지만, 그의 사후 심노승 대에 이르면 자식의 혼비(婚費)를 충당하기 위해 파주 묘전(墓田)을 처분할 만큼 경제적으로 끄떡하지 못하였다.⁴⁶⁾ 1817년에 심노승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탕산(蕩產)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대해 자괴감을 표출하기도 했다.⁴⁷⁾

45) 沈魯崇, 『孝田散稿』 第11册, 「山海筆戲」(甲子錄) “曉夢，余與泰詹，同至趙友原明，泥峴之舍，趙友大人僉正公在焉。語言如平日，語多及吾家遺稿刊印事，至於量計財力。” 이 글에서 ‘趙僉正’은 심노승의 장인인 ‘趙鎮寧’을 가리킨다.

46) 심노승 집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沈魯崇, 『孝田散稿』 第30册, 「貽後錄-治產」 참조. 심낙수의 젊은 시절 빈한한 삶에 대해서는 沈樂洙, 「恩坡散稿」 第4册, 「饑訟」 참조.

47) 이에 대해선 심노승의 다음 글이 참조가 된다. 沈魯崇, 『孝田散稿』 第22册, 「自著紀年」 “朋友之有無相資，古來通誼。近俗則絕無，或有不得已勉，應者無異蹴爾之與，不但見色而已。先君平生居貧，未嘗一向人爲求丐語，不肖所知。余自近年，盪產以後，或遇有事，故或迫於飢

따라서 인용문의 술회대로 심노승은 자신의 생전에 『은파산고』의 간행을 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가세로 간비의 확보가 종내 어렵게 되자 정고본의 최종 정사본(淨寫本)을 만들게 된 것이다. 정고본 형성에 결정적 지원을 했던 동생 심노암은 1811년에 졸하였고, 그의 죽음 후에도 심노승은 부친 유고의 교열작업을 계속해나갔다.⁴⁸⁾ 그리고 환갑을 넘은 노경(老境)에 이르러 그는 더 이상 간행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차선책으로 정고본의 선사(繕寫)를 결정한 것이다.

인용문의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아이들’은 심노승의 아들인 심원신(沈遠慎, 1811~1844)과 동생 심노암의 아들인 심원열(沈遠悅, 1792~1866)을 가리키고, ‘삼종형제’는 아마도 십촌형제인 심노혁(沈魯赫, 1814~1860)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심노승은 그들에게 『은파산고』를 선사(繕寫)시켜 세 부를 간직하게 해서 대대로 보고 모범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서 고구한 것처럼 벼를 리대소장본은 심노승과 심종순의 장서인이 찍힌 청송심씨가 구장본이다. 그러므로 벼를리대소장본은 1824년에 심노승이 후손들에게 선사시켜 대대로 보관할 것을 당부한 그 세 부의 정사본 중 하나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효전당장서(孝田堂藏書)라고 찍힌 사고지에 깨끗하게 필사된 정고본은 심노승의 유지(遺志)에 따라 세 곳에 분산 배치되었고, 그 가운데 심원열 집안에 소장된 것이 그의 아들 심종순 대에까지 이어져 지금의 벼를리대소장본이 된 것이다.

첨언하자면 1824년에 정사본 세 부가 만들어졌을 때 심노승이 『은파산고』의 가장 중요한 보관인으로 생각한 인물은 바로 조카 심원열이었을 터이다. 심노승은 뒤늦게 후사를 얻었고, 평생의 지기인 동생이 죽자 그의 아들 심원열을 자식처럼 가르치며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심원열은 「경연일기」(經筵日記)를 비롯해서 조부 심낙수의 유필을 소장하기도 했다.⁴⁹⁾ 따라서 심노승의 『은파산고』 편찬

寒，量親分而度事力，乞物於知舊之有官食者，屢矣。乞之固是強意，而施之未見眞情，在我不須自慊，在彼未必深責，事理則然也。”

48) 심노승과 심노암의 교수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조가 된다. 沈魯崇, 『孝田散稿』 제23册, 「弟田大祥前一日告文」“先藁校讎，尙記君臨命之言，近日畧始訂閱，而往往有合商量，勘定不得，此時吾又何心？三年之間，吾未嘗爲一詩一文，讀一書一篇。” 해당 글은 유정열 연구원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과정을 일찍부터 지켜보았고 1824년 정사본이 제작될 당시 가장 연장자였던 심원열의 집안에서 『은파산고』 정고본이 보존되어 내려와, 지금까지 확인되는 심낙수 문집 필사본 4종 가운데 3종이 현존하게 된 것이다.

5. 남은 문제

본고는 현존하는 『은파산고』 필사본의 서지사항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일견 기계적으로 보이는 사실들로부터 출발해서 필사본 4종이 갖는 상호관계를 밝히는 한편,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초고본과 정고본을 비교하고, 정고본의 형성과정을 재구하였다.

『은파산고』는 필사본 내의 단서와 이 문헌의 정리에 참여한 인물들의 증언이 상호 유기적으로 조응한다. 심낙수의 생애사적 궤적은 초고본의 성립시기와 대응되고, 심노승 형제의 기록은 정고본의 부록과 체재, 정사작업, 장서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한다. 초고본과 정고본이 응변하듯, 심낙수 생전에 이루어진 저작의 정리는 그의 사후 1824년에 최종 정사본이 만들어짐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런데 『은파산고』의 성립을 고찰하면서 그 여성에서 실로 다양한 모습의 심노승을 마주할 수 있었다. 평안북도 회천군에서 부친의 「열전」을 교정하던 30대 초의 그를 만날 수 있었고, 부친의 유고를 땅에 묻고 경남 유배지로 향하던 40대의 심노승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적소에서 부친의 행장과 연보를 부여 잡고 수정하던 그를 떠올릴 수 있었으며, 죽은 동생의 빈자리를 느끼며 유고를 교수하던 50대의 그를 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의 막바지에 접어들어 정사본을 제작하고 후손에게 그 보존을 당부하던 60대의 심노승까지 만날 수 있었다. 『은파산고』의 편찬이 심노승 생애의 전과정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49) 심노승과 심원열의 각별한 관계는 沈遠悅, 『鶴陰散稿』 卷9(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世父孝田公六十一歲序」 참조. 심낙수의 친필 「경연일기」(經筵日記)를 심원열이 소장했다는 점은 沈遠悅, 『鶴陰散稿』 卷9, 「家藏筆蹟跋」 참조.

그러므로 본고의 작업 결과는 심노승 문학의 내적 연원(淵源)을 밝히기 위한 관건으로서 심낙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간 심노승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1990년대 초반 심노승은 『대동폐림』(大東稗林)의 편찬자로 학계에 처음 보고되었는데, 한문학 분야에서 소품문(小品文) 연구가 호황을 맞으면서 조선후기 대표적인 소품작가로 조명되기 시작되었다.⁵⁰⁾ 그러나 최근까지 이어지는 심노승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이 명청문학(明清文學)의 수용 외에 과연 어떠한 내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이 미진하였다.

가학(家學)의 측면에서 부친 심낙수가 심노승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거론되었지만, 정작 심낙수 작품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심낙수의 저술은 심노승에 의해 편집되었다든가, 심노승에 의해 증보되었다는식의 막연한 논리가 통용되어왔다. 일례로 『대동폐림』에는 『정변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기왕에 논의된 것처럼 이것은 심낙수의 『정변록』을 초고로 해서 심노승이 내용을 보강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낙수의 『정변록』이 강목체와 편년체로 이루어진 일관된 역사기록이라면, 심노승의 『정변록』은 심낙수의 역사의식에 입각해서 상소와 차자(劄子), 전교(傳敎) 등 1차 근거자료를 총망라해 수합한 것이다.⁵¹⁾ 따라서 『대동폐림』 소재 『정변록』은 심노승이 부친의 저술을 주제적

50) 심노승의 『대동폐림』 편찬에 대해서는 안대희, 1991 「大東稗林에 대하여」, 『(영인본)정가당본 대동폐림』 제1권, 국학자료원, 1-14면; 안대희, 1992 「조선후기 野史叢書 편찬의 의미와 과정」 『민족문화』 15, 129-155면 참조. 심노승의 소품문에 대해서는 김영진, 1996 「孝田 沈魯崇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진, 2003 『朝鮮後期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3-172면; 안대희, 2015 「18·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 沈魯崇의 『孝田散稿』와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79, 167-192면 참조. 번역서로는 김영진 역, 2011 『눈물인가 무엇인가』, 태학사; 안대희 역, 2014 『자저실기: 글쓰기 병에 걸린 어느 선비의 일상』, 휴머니스트 참조.

51) 『은파산고』 소재 『정변록』과 『대동폐림』 소재 『정변록』은 제목이 같기 때문에 동일 자료로 혼동되기 쉬우나 실제 수록내용이 다르다. 『은파산고』 소재 심낙수의 『정변록』은 상하편으로 이루어졌다. 상편은 1749년부터 1788년까지의 정국동향을 강목체 형식으로 기술한 것이고, 하편은 1756년부터 1788년까지의 정국동향과 관련된 개인사를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시비를 정하고 충역을 변별한다는 대원칙 아래 상편에서는 공사(公事)를 다루고 하편에서는 사사(私事)를 다루어, 공(公)과 사(私)의 역사가 치밀하게 교직되도록 안배한 글이다. 반면 『대동폐림』 소재 『정변록』은 총 22책으로, 1770년부터

으로 정리해 완성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친의 저술을 계승하여 일종의 각주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승과 부연”을 위주로 한 심노승 저술의 특징은 편찬자로서 심노승의 역할과 비중에 주목하던 종래의 관점을 전환하여, 심낙수 문학의 고유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것이 심노승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심낙수 문학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심낙수가 차지하는 위치를 비정하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좀 더 시야를 확장해보면, 조선후기 소품문 발달의 내적 연원과 그 사적 추이를 규명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심낙수 문학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로부터 심노승이 계승한 측면은 무엇인가? 반면 심낙수 문학 가운데 심노승이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심노승은 심낙수 문학의 어떤 국면을 강화시켰고 반면 어떤 국면을 약화시켰는가? 그 계승과 단절의 지점을 파고드는 일은, 조선후기 문학사를 명청소품의 유입과 유행이라는 외재적 시작으로 단선화하지 않고 조선 내부의 상황과 특수성, 다시 말해서 주체적 측면을 복원해내는 방향으로의 학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동시기 유한준(兪漢雋, 1732~1811)과 유만주(兪晚柱, 1755~1788)는 부자관계 이면서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각각 고문가(古文家)와 소품작가로 부조(浮彫)되어 있다. 그렇다면 심낙수와 심노승, 혹은 남유용(南有容, 1698~1773)과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문학은 과연 어떠한가? 고문가와 소품작가가 한 세대를 격차로 출현하는 조선후기의 상황은, 소품문의 유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국문학

1810년까지의 주요 정치현안과 관계된 각종 사료(史料)를 모은 일종의 자료집이다. 심노승의 『경시일록』(閑寺日錄)에 실린 1830년 2월 29일의 기록을 보면, 『정변록』 작업과 관련해서 오선여(吳善如), 김치인(金致仁), 김이재(金履載) 집안 등에 소장된 문헌자료를 물색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대해선 沈魯崇, 『孝田散稿』 第36册, 「閑寺日錄(上)」 “『定辨錄』之役, 始工於昨年六月, 起於正宗丙申, 今主當寧丙寅, 將取次就緒, 而自元陵戊辰已日至丙申, 無以得其原本, 吳善如家所藏, 丙申以下許借, 以上固不出, 其意未可知. 秀台尙自保, 其必得此, 何可知也?” 참조. 그런즉 심노승은 자신의 집안에 전래된 문헌 외에도 당대 사대부가에 산재하던 각종 장고(掌故)와 상소 등을 수소문해 총수합하여 『정변록』을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정변록』은 『대동폐림』에 수록되었으므로, 심노승의 『대동폐림』 편찬작업은 적어도 1830년까지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의 유입 못지않게 전시대와의 연결고리에 한층 유의할 것을 환기한다. 세대간 통시적 대비는 소품문이 우리 문학사에 드리운 명암(明暗)을 ‘연속과 단절’이라는 모습으로 변주되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심낙수와 심노승의 문학을 소환하는 작업이 다음의 과제로 남아있다.

주제어 : 『은파산고』, 심낙수, 심노승, 심노암, 문헌학적 연구

투고일(2015. 11. 13), 심사시작일(2015. 11. 23), 심사완료일(2015. 12. 10)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Eunpasango*(恩坡散稿)
and Sim No-sung(沈魯崇)

Kim, Su-jin *

Eunpasango(恩坡散稿) is an anthology of manuscript copies of the works of Sim Nak-su(沈樂洙, 1739~1799). It is held by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nd the C.V. Starr East Asian Library of UC Berkeley. Thus far, Sim Nak-su has been known more as a politician than as a man of letters.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s why Sim Nak-su's literary works deserve academic attention by attempting to conduct a comprehensive bibliographic analysis of *Eunpasango*.

This study adopted two methodological approaches. First, it took a 'positivist approach relying on primary sources.' The study compared the four versions of extant *Eunpasango* manuscript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manuscript copies. The study also compared the draft copy with each of the subsequent revised versions of the manuscript, and reconstructed the process of revision.

Secondly, this study tried to conduct the bibliographic analysis with a view to literary/historical context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how Sim No-sung(沈魯崇, 1762~1837) was dedicated to the restoration of the literary legacy of his father, Sim Nak-su, and how the publication of *Eunpasango* had been the focus of Sim No-sung's efforts throughout his life.

This study is a step toward illuminating the internal origin of Sim No-sung's literature. Further research on the literary works of Sim Nak-su needs to be conducted, especially by placing the literature Sim Nak-su and Sim No-sung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generational diachronic comparison.'

Key Words : *Eunpasango*(恩坡散稿), Sim Nak-su(沈樂洙), Sim No-sung(沈魯崇), Sim No-am(沈魯巖), bibliographic research

* Curat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